

‘융합실무형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혁신 대학

남서울대(총장 윤승용)가 ‘융합실무형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혁신 대학’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스마트팜학과와 가상현실학과를 신설하고 4개 학과에 변화를 주는 학사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 산업시대에 맞춰진 학문 분류체계를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대학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제적 수준감각 갖춘 글로벌 농·생업 인재양성

스마트팜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농·생업 분야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한다. 스마트기술과 농·생업을 접목한 융합분야를 다루는 스마트팜학과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농장을 관리하고 작물의 품질과 생산량을 높이는 미래 농·생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과로, 최근 국내의 유망산업으로 분류되는 스마트팜과 ICT기술, 보건 의료, K-한류가 융합된 학과이다.

스마트팜학과는 스마트팜 설계 및 운영, ICT, 전기전자, 컴퓨터 기술 등을 가르치는 농업 전문가와 농업 회사, 스마트팜 농장, 스마트팜 창업센터, 스마트팜 연구소, 스마트팜 국제교류센터 등 다양한 전문가와 기관을 연계해 인문지식과 국제적 수준에 맞는 감각을 함께 갖춘 글로벌 농·생업 인재를 양성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선도 콘텐츠전문인 양성

가상현실학과는 문·이과 통합수능이 치뤄지는 등 높아진 융합형 인재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학부개편이 진행됐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IT와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배우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기획과 스토리텔링, 미디어 디자인과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더한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개편을 진행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하는 콘텐츠 전문인을 양성한다.

올해 대학원은 100% 온라인 수업으로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VR·AR응용 콘텐츠학과’가 개설됐다. 이는 국내 최초로 가상증강현실학과 석사과정을 2015년부터 운영하면서 현재는 세계은행과 함께 동카리브해국가에 온라인 VR석사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년간의 온라인교육 노하우와 기술을 인정받아 교육부승인을 받게됐다.

디지털 이미지 응용으로 미래형 디자이너 인재육성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디자이너를 원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미래지향적 융합예술가를 양성하고자 기존의 시각정보디자인학과에서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했다. 교육과정 또한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디지털 이미지 응용을 통해 미래형 디자이너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순수조형과 디자인 능력 동시 배양

공간조형디자인학과 또한 다양한 미디어와 IT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형태의 조형예술을 창조하는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재료와 디자인, 조형 장트를 폭넓게 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유리세라믹디자인학과에서 학과명을 변경했다. 교육과정 또한 현대예술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순수조형과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디자인 능력을 함께 배양할 수 있는 통합교육과정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ICT기술 활용 휴먼케어 프로그램 콘텐츠개발

휴먼케어학과는 급변화하는 사회수요에 맞춰 성인기 이후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일상생활의 제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ICT 기술을 활용해 발전된 휴먼케어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과 휴먼케어기관 창업 및 운영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4대 트랙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해 운영된다. 이에 발맞춰 학과명 또한 기존의 노인복지학과에서 휴먼케어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했다.

3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이렇게 학사구조 개편을 진행한 남서울대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으로 3년 연속 선정이 눈에 띈다. 남서울대 학위와 외국 유명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글로벌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국제적 요구에 맞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중추적 역할과 호주, 중국, 일본 등과 협정이 체결돼 있어 학생들이 원하는 국가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교내에서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취득할 수 있는



TOPIK 시행대학으로서 9년간 운영되며 연 4,000명의 외국인들에게 공인 TOPIK 취득 기회를 제공해왔다. 유학생들과 남서울대 재학생들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멘토링, 버디, 취업, 어학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남서울대는 향후 10년 이내에 명실상부한 중부권 국제교류 선도대학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는 목표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개편한 교육과정과 학사구조를 기반으로 온라인 학위과정과 교육과정 해외수출, 해외 원격 국제교류센터 및 예비반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남서울대 화정관

남서울대, 정부-지자체 관할 지원사업 다수 선정

남서울대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이 주관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다수에 선정되며 내실을 쌓아가고 있다.

남서울대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3년연속 선정됐으며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3단계 학교기업지원 사업>,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대학 글로벌현장 학습지원 사업>,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간정보 혁신인재양성 사업>, 서울시의 <북부기술 교육원 운영기관>,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청년사회서비스 운영기관>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며 중부권 명문 사립대학의 입지를 입증했다.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남서울대 학교기업 '인터브이알'은 2017년부터 6년 연속 사업을 지원받아 가상증강현실 기술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함과 동시에 교내 현장·창업프로그램을 개설해 양질의 커리큘럼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기업 '잡고'는 공유형 '멀티 스튜디오'를 오픈해 유튜브 및 다양한 촬영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0년부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청년들의 재능을 활용해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재능 거래마켓 잡고' 플랫폼을 런칭해 학생들의 취·창업에 지원한다.

'대학 글로벌현장학습 지원사업'으로 해외현지 유학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대학글로벌현장 학습 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을 외국현지 파견 전제 현장학습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에 선발된 학생은 1인당 980만 원 가량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미국, 캐나다 현지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영어 집중수업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인터뷰와 모의면접 등을 통해 현장실습을 준비하고

전공 매칭 및 취업 희망분야 기업에서 현장학습을 수행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과 고교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입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진행하는 고교연계 프로그램 운영비와 대입전형 개선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서울대의 대표적인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신입생(멘티)과 재학생(멘토)을 연결해주는 '키다리 선배' 프로그램과 장애인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대입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NSU Information Heal' 프로그램이 있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남서울대는 2024년까지 매년 평균 2.5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지원 받는다.

다수 국고지원사업 선정, 남서울대 내공 인정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간정보혁신인재 양성 사업>은 정부가 미래산업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정보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4년제 대학 8개교를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해 3년간 총 45억여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선정을 통해 남서울대 드론공간정보공학과는 3년간 5억4천만 원 국고지원을 받게 되며, 사업기간 내에 공간정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150명 가량 양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국고지원사업 선정으로 남서울대만의 '실무형 인재양성'에 힘을 쏟아 더욱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성철 입학홍보처장은 "각종 국책사업에 연속 선정된 것은 과업수행 능력과 대학의 경쟁력, 학생의 만족도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남서울대가 인정받은 증거"라며 "지원사업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세계화에 대비할 수 있는 융합형 실무 인재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남서울대 수시모집 안내

INTERVIEW | 이성철 입학홍보처장

“다양한 학교생활과 실기 등 경험이 합격 가능성 높여”

△합격을 위한 Tip을 준다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교과성적 이외에 다양한 학교생활과 실기 등의 경험이 합격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전형 설계 했으며, 과목별 진로 선택과목도 제한없이 반영된다. 또한 문·이과 교차지원이 가능하고, 전형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모든 전형 및 모집단위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다. 특히, 교과+면접 전형의 경우 비대면 녹화영상면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면접영상을 녹화해 업로드함으로써 간편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교과성적, 학교생활, 실기 등 다



양한 전형요소로 만들어진 입학전형을 이해하기 위해 대학에서 제공하는 입학설명회, 모의면접, 자기소개서특강, 실기고사 문제은행, 면접고사 문제은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년도 입시결과'를 참고해 자신에게 적합한 입학전형

에 지원한다면 합격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수험생들에게 당부 한마디.

2024학년도 남서울대 입학전형은 수험생들이 다양한 입학전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부교과(일반, 지역인재, 특별전형, 교과+면접전형), 학생부종합(서류형, 면접형), 실기위주 전형을 운영한다. 수험생들은 입시정보에 관심을 갖고 남서울대의 입학사정관 등 전문인력과 상담한 후 최적의 입학전형을 선택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전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 홈페이지

IT융합·글로벌 교육역 리더
남서울대학교

nsu에서
너의 미래를 선명하게

취업이, 성공이, 미래가 가까워진다.
앞선 미래형 커리큘럼으로
남서울대의 인재를
새로움을 향해 나아갑니다.

2024 신입생 수시모집 2023. 9. 11. [월] ~ 15. [금]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일학습병행 첨단산업 아카데미 사업 선정

가상현실학과·스마트팜학과 신설

'VRAR응용콘텐츠학과' 온라인 석사과정 운영

과기부 디지털 콘텐츠 미래인재 육성 기관

국내 유일 초·중·고교 IB국제교사자격증 운영